

25일 Market Index	
코스피 2710.65 (-48.06)	코스닥 797.29 (-16.96)
금리 (연율) 3.020 (-0.026)	환율 (원/달러) 1385.25 (+1.45)



동학개미 이겼다... 금투세 폐지 상속세 자녀 공제 5억으로 확대

2024 세법개정안

1400만 개인 투자자 보호 차원
현행 부과 양도소득세 체계 유지

상속세 최고세율 40%로 하향
다자녀 가구 상속세 부담 완화

정부가 금융투자소득세의 폐지를 추진하기로 했다. 내년 1월1일 시행 예정인 이른바 '금투세'는 주식매매 차익 등에 20~25%의 세금을 매기는 제도이다. 또 낡은 세제의 개선 방안으로, 상속·증여세 부담의 큰 폭 완화를 제시했다. 상속세 공제액을 자녀 1명당 5억원까지 확대한다는 방안을 꺼내 들었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관련기사 2면〉

기재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언론설명회에서 금투세 폐지와 관련 "자본시장 활성화와 국내 1400만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한"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현행 주식 등에 부과하는 양도소득세 체계의 유지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금투세 폐지

를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아울러 낡은 세제를 정비해 경제의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했다. 기재부는 "약 25년간 유지해 온 상속세율, 과세 표준을 조정하겠다"며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 상속세 최고세율을 40%로 하향 조정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현행 최고세율은 50%(30억원 초과)다. 반면, 가장 낮은 10% 세율이 적용되는 기준인 1억원 이하를 2억원 이하로 상향한다. 현재 1억~2억원 사이는 20%를 적용하고 있다.

이에 더해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을 현행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까지 대폭 확대한다. 이를 통해 "중산층, 특히 다자녀 가구의 상속세 부담을 덜겠다"고 기재부는 밝혔다.

세법 개정을 통해 출생 위험에 대응하고, 민생경제 회복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신혼부부에게 최대 100만원을 공제하는 결혼세액공제를 신설한다. 배우자에게도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지원해, 결혼 가구의 주택 마련 기회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소기업 소상공인 대상 노란우산공제 납입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100만원 상향하고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도 1년간 연장 적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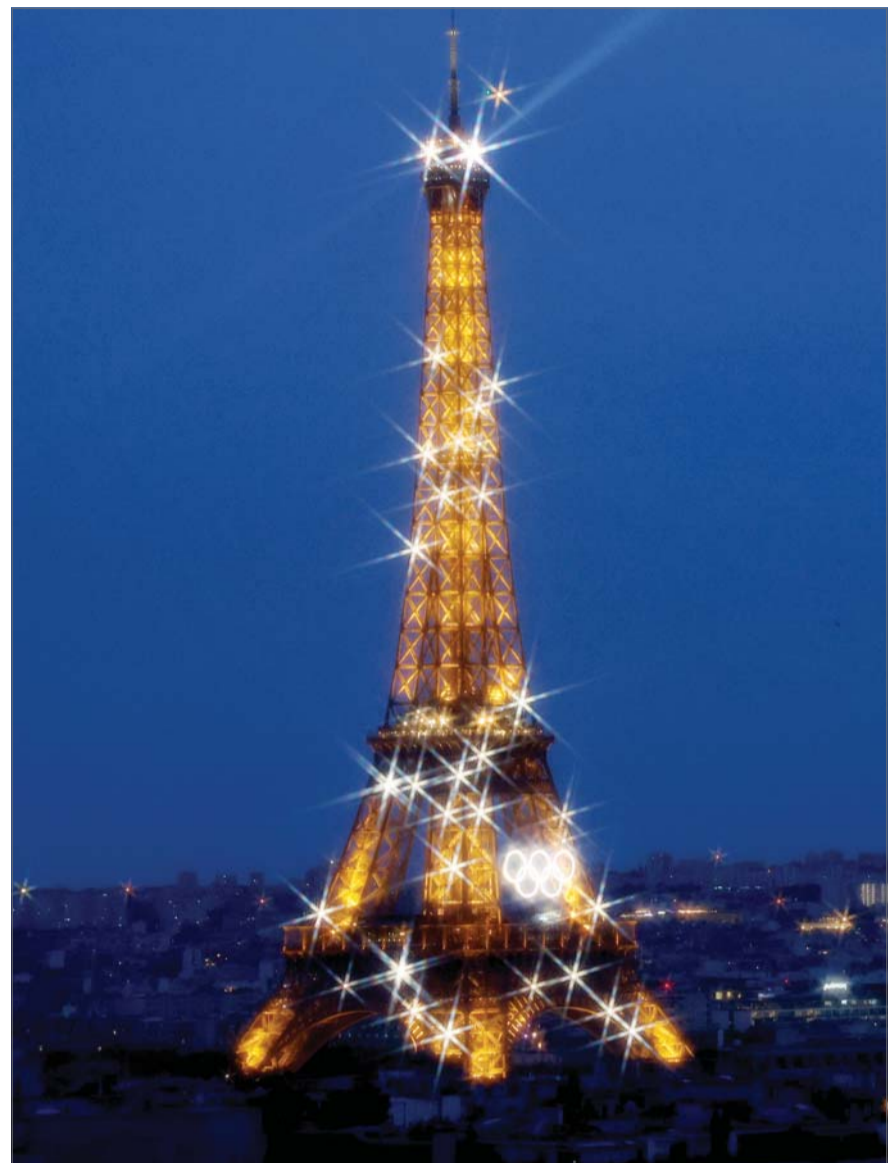
이번 개정안에는 전통주 산업 촉진을 위한 주세 경감방안도 담겼다. 경감 대상 제조자를 현행 발효주 500k l 이하, 증류주 250k l 이하에서 각각 700k l 이하, 350k l 이하로 확대한다. 또 탁주 제주 시 첨가 가능한 원료에 향료·색소를 추가하기로 했다. 현재 향료와 색소 첨가 시 기타주류로 분류돼 주세가 높지만 개정되면 세율이 낮은 탁주 적용을 받게 된다.

기재부는 "향후 5년에 걸쳐 약 4조 4000억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고 했다. 하지만 내년 이후에는 수출 증가에 따른 기업실적 호조가 예상되며, 세입 여건도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기재부는 이번 개정안을 이달 26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8월27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후 9월2일 이전에 정기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기재부는 이번 개정안을 이달 26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8월27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후 9월2일 이전에 정기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기재부는 이번 개정안을 이달 26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8월27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후 9월2일 이전에 정기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기재부는 이번 개정안을 이달 26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8월27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후 9월2일 이전에 정기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올림픽 개막 앞둔 파리의 밤 2024 파리 올림픽 개막을 이틀 앞둔 24일(한국시간) 밤 프랑스 파리 에펠탑에 오륜마크가 빛나고 있다. /뉴시스

M-커버스토리

부동산 PF發 연체율 상승 업황악화에 M&A도 표류

위기의 저축은행

작년 79곳 당기순손실 5999억
올 1분기도 1543억 역대급 적자
대손충당금 50% 가까이 늘려

고금리 지속과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여파로 저축은행이 위기를 맞고 있다. 부동산 시장 침체에 따른 부동산 PF발 연체율 상승 탓에 건전성도 나빠졌다. 주먹거리인 리테일(소매금융) 규모도 쪼그라들면서 올해 경영 목표는 '위기 극복'과 '생존'에 방점을 찍고 있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저축은행 79곳의 당기순손실은 5999억원이다. 앞선 2022년 1조 5622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거두면서 호황을 누렸지만 1년 사이 대규모 적자로 전환했다. PF 손실에 대비하면서 대손충당금을 1년새 50% 가까이 늘린 영향이다. 지난해 저축은행의 대손충당금 잔액은 3조8731억

원이다.

9년 만에 적자를 기록한 가운데 그 여파가 올해까지 이어지고 있다. 올 1분기에는 1543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역대급 한파'로 불린 지난해 동기(-527억원) 대비 1000억원 넘게 적자가 늘어났다. 업계에서는 올 상반기 손실 규모를 5000억원 수준으로 추정하고 있다. 일부 신용평가사에서는 올해 저축은행 손실 규모를 2조원대로 관측한 보고서도 공개했다.

연내 저축은행 인수합병(M&A)도 물 건너간 분위기다. 업황 개선 조짐이 나타나지 않는 만큼 부실만 떠안을 위험이 높아져서다. 지난해 4대 금융지주 가운데 유일하게 수도권 저축은행을 보유하지 않은 우리금융지주는 상상인저축은행 인수를 위해 실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본격적인 매매논의까지 진행하지 못한 채 무산됐다.

〈4면에 계속〉

/김정산 기자 kimsan119@

정의선 결단력 통했다... 현대차, 분기 최대 실적

2분기 영업이익 4조2791억 기록
매출 45조... 전년 대비 6.6% 늘어
친환경 고부가가치 중심 판매 효과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45조205억원, 4조2791억원' 역대급 실적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현대자동차가 고부가가치 차종 중심 판매 확대로 2분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매출만 45조원을, 영업이익은 4조2800억원 가까이 늘어났다. 현대차는 25일 실적 발표 콘퍼런스를 열고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4조2791억원으로 지난해 2분기보다 0.7%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매출은 45조206억원(자동차 35조2373억원, 금융 및 기타 9조7833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6.6% 늘었다.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분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이다. 종전 최대 실적은 매출 42조2332억원, 영업이익 4조2483억원을 기록한 지난해 2분기였다. 올해 2분기 순이익은 4조1739억원으로

24.7% 늘었다. 영업이익률은 9.5%로 집계됐다.

현대차는 고수익 차종을 중심으로 한 판매 믹스(차량용 구성비율) 개선과 환율 효과 등으로 역대 분기 최대 실적으로 달성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상반기 전체로는 매출 85조6791억원, 영업이익 7조8365억원을 기록했다.

반기 기준으로 매출은 작년 상반기 실적(80조32억원)을 뛰어넘는 역대 최대 기록이다. 영업이익은 기존 최대 기록인 작년 상반기(7조8906억원)에 살짝 못 미쳤다.

현대차 관계자는 "고금리 지속에 따른 수요 둔화와 주요 시장 경쟁 심화로 인한 인센티브 상승 추세 등 불확실한 경영환경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고부가가치 차종 중심 판매, 환율 효과 등을 바탕으로 영업이익률 9% 이상의 안정적인 수익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대차가 이같은 실적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었던 배경에는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의 '결단력과 추진력'이 자리하고 있다. 정의선 회장은 프리미엄 브랜드 제네시스와 친환경차(하이브리드·플러그인 하이브리드·전기차·수소전기차) 경쟁력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최근 글로벌 전기차 시장 수요가 둔화하고 있지만 정 회장은 글로벌 생산 거점 확대 등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차세대 하이브리드 시스템 개발도 그 중 하나다.

〈2면에 계속〉

〈2면에 계속〉

〈2면에 계속〉

〈2면에 계속〉

〈2면에 계속〉

〈2면에 계속〉

〈2면에 계속〉

〈2면에 계속〉

〈2면에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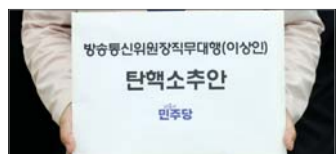
〈2면에 계속〉

〈2면에 계속〉

〈2면에 계속〉

〈2면에 계속〉

뉴스터미널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野 '이상인 탄핵안' 25일 본회의 보고 당론 추진 /사진 뉴시스
▲ 與 김종인 "추경호가 한동훈보다 우위? 똥단지같은 소리"

▲ 방미 통일장관 "김정은·트럼프 대화 재개, 회의적 시각 많다"
▲ 국세청,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상속세 과세 검토



▲ 조국혁신당, 윤 거냥 '탄핵추진위' 출범... "정치적·법적 탄핵 투쟁" /사진 뉴시스
▲ 정부 "전공의 모집 '보이콧' 발생하면 법적 조치 강구"